

|     |                     |      |                   |
|-----|---------------------|------|-------------------|
| 성명  | 홍혜윤                 | 수험기간 | 2020.03.~2024.07. |
| 학교  | 서강대학교               | 전공   | 유럽문화              |
| 키워드 | 비이공계_합격 민소고득점 특허고득점 |      |                   |

## 들어가며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번 61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게 된 홍혜윤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대학에 와서 처음 이과에 발을 들인 '비이공계' 출신 수험생임을 밝힙니다. **1차 삼시, 2차 기득**으로 합격했으며 **총 수험기간은 약 4년반**입니다. 문과 출신이었기에 1차 자연과학의 벽이 상당히 높았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논술형 시험이 익숙하다는 점**'은 이공계분들보다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수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동차 [2023.3.~2023.7.]

**점수 48.44점** [민소-49.66점, 특허-48.33점, 상표-47.33점, 디보-53점]

저는 휴학가능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던 관계로 동차생활을 학기병행(9학점) 했습니다. 학점은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F를 피하려 수업 들으러 왔다갔다 이동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학교 전공공부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휴학 횟수가 여유로우시다면 꼭 동차 때는 휴학하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 ☑ <3월~4월> : 나도 드디어 2차 수험생!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사례강의 수강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은 기초gs+ 수강했습니다. 사실 상표법은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4월엔 문제지와 답안지만 받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혼자 따로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문제지, 답안지만 받아왔었는데 결국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gs에서 골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디 **남들 쓸 때 쓰시길 바랍니다**. 동차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한 번 미루면 밀도 끝도 없이 밀립니다. 오히려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쓰면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지함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지만 받아온 생활.... 기득 시작할 때 너무 후회했습니다.

### ☑ <5월~6월> : GS 90% 단골손님, 어서오세요~

민사소송법 GS 실전B, 특허법 GS 실전 A, 특허상표 6월 콜라보(실전GS B형에 대응) 수강했습니다. 상표법은 4월에 포기했던 여파로 실전A를 듣지 못하고 바로 콜라보에 투입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오기에 가까웠는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사장에서 할 수 없는건 GS에서도 하지말자~'는 생각으로 3법 모두 책은 거의 안 보고 썼습니다. 당연히 죄다 논점이탈에 논점 누락이었는데 분량만 이상하게 14~16p씩 뽑아내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늘 GS 90%대였던 기억이 납니다. 6월까지 gs에서 40점 넘어본 적이 손에 꼽았고 암기부담이 큰 민사소송법은 15.5점에 98.8%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곳곳하게 다음 GS 쓰러 출석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 <7월> : 동차, 30일의 기적

1학기 종강과 동시에 정말 미친듯이 암기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달린다, 운 좋으면 붙는거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30일 막판 스퍼트 덕분에인지 실제 시험에서 다행히 백지 제출한 문제는 없었고 평소 gs점수보다 훨씬 준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48.44 (민 특 상 다: 49.66 / 48.33 / 47.33 / 53)

다수의 수험생 분들의 현실적 합격 목표는 기득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득합격을 하시려면 **반드시 동차를 완주**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멘탈 무너진 4과락'과 그래도 '끝까지 달린 4과락'은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차 때 시험을 준비하며 느낀 것들(7월엔 체력적으로 버거우니 기득 땀 좀 더 미리 스포츠를 내자 등) 바탕으로 기득 시즌을 보냈습니다. 동차는 누구나 다 힘든거니까 **꾸준하게 인내하셔서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동차도 운 좋으면 합격입니다!

## 기득 [2023.9.~2024.7.]

**점수 58점** [민소-70.33점, 특허-56점, 상표-47.66점, 디보-70.33점]

정확한 강의 수강시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때쯤 공부했겠구나 정도로만 참고하며 읽어주세요!

### ☑ <9월~10월> : 기초 다지기1, 뼈대 세우기

8월 한 달간 휴식 후 복학(6학점)과 함께 기득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기초GS+ 각각 주1회씩 풀답안 작성**했습니다. 전통적인 A급 논점을 다루기에 복습 과정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강사님 답안지 스타일을 익히기 좋았으며, 쓰기 감각을 올리기 좋았습니다. (강사님 답안지 스타일을 왜 익혀야하나 싶은 분들이 게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는 '모방'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기본서만 상표는 기본서 및 판례집을 공부했습니다. **특허와 상표 격일로 공부**했으며 회독 속도는 기본서 기준 30~40p 정도였습니다. 상표 판례는 20개 정도씩 판결 요지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례집보다는 **통합 기본서 회독을 꼼꼼히**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회독 속도는 4주에 1회독이었으며 개념의 논리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동차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머리에 넣기 급급했는데 천천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 <11월~12월> : 기초 다지기2. 기출문제야, 반가워!

특허법과 상표법은 기초GS+ 쓰기가 끝난 후 **기출 16개년 풀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특허와 상표의 경우 특허나 기출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해 과감히 시간을 투자해 풀답안을 작성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풀답안을 작성했던 문제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 편이라 시험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음에도 '아 이미 기출 봤으니까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출 개념들에 대해 파악 후 기본서 회독시 강약조절도 하고 기출 특유의 러프함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허 상표 모두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도 함께 수강했습니다. 상표는 제가 워낙 자의적 해석을 많이해서(기득 상표 폭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판례 결론만이라도 기억하려고 수강했습니다. 특허 판례강의의 경우 무턱대고 외우려하기 보다는 일단 기본서에 있던 '판례의 원문이 이런 맥락에서 도출됐던거구나, 결론이 이렇구나'정도로만 숙지했습니다. 확실히 판례강의를 듣고 나면 판례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서도 입체적으로 읽히고 회독속도도 현저히 빨라집니다. 특허의 경우, **사례강의는 선택! 판례강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개강과 거의 동시에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으며 간에 살짝 쳐져서 12월 중순쯤 종강했던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과목 특성상 양이 워낙 방대해 완강이 어렵긴 했지만 민사소송법의 전반적 이해도를 훑어올려준 강의였기에 만족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항상 중요논점들에서 출제된다고 생각해 **5개년 기출문제만 눈으로 훑어**

본 뒤 별도로 풀답안을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사례집보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고 회독속도는 3주반 정도였습니다. 9~10월과 마찬가지로 **속도보다 이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증거, 항고, 재심 등 동차 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기득 때도 공부하기 수월하지 않았는데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것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단 '이런 개념이 있구나, 다음 회독 땐 좀 더 잘 읽히겠지!' 정도로 가볍게 내용 숙지 후 넘어갔습니다.

### ☑ <1월~2월> : GS시즌 전에 품 올리기, 뼈대에 살 붙이기 시작!

1월과 2월의 목표는 'GS시즌 전에 암기를 어느정도 끝내두자'였습니다.

변리사 수험가의 단골 논쟁거리인 'GS유용론과 무용론'의 대립과 별개로 제가 GS시즌 대비를 1차 목표로 잡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기시간 축소예정 및 멘탈관리

우선 제 공부 계획상 GS시즌이 개강과 동시에 답안 작성의 비율을 늘릴 계획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암기 시간 확보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월부터는 암기보다는 쓰기 감 올리기, 답안지 구성 고민에 시간 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2월에 최대한 많이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했습니다.

또한 GS 성적이 하위권일 경우, 시험 때까지 스스로 합리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에선 잘하겠지. GS 성적 그거 다 필요없어' 이런 생각의 여지 자체를 남겨두기 싫었습니다. 1~2월에 미리 암기스퍼트를 올린 결과 GS시즌 내내 준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GS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기에 멘탈관리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상표의 경우 **판례집 암기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상표는 한 번에 30개씩, 특허는 별 세개 이상 판례들 위주로 10개씩 암기했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항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례강의를 수강한 이후라 기본서 회독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였기에 판례집 암기를 함께 병행했음에도 공부량이 크게 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례집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서 회독을 멈추진 않았고 공부시간을 1시간정도 늘렸습니다. 사례집 목차잡기 스타디를 꾸려 하루 10개씩 목차 잡은걸 인증했습니다. 회독 속도는 대략 3주반이었습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후술) 기본서의 경우,회색박스도 암기하려 노력했으며 그동안 잘 암기되지 않았던 부분 대위추심, 서증, 항고, 재심 위주로 집중 암기했습니다. (1회독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게 8회독쯤 하면 이해가 되더라구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회독수 늘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대위추심소송 학판검 무더기로 나와있는 부분 15회독 훨씬 넘게 했어요)

### ☑ <3월~6월> : GS시즌 & 평일쓰기스터디, 버터줘 손가락

쓰기 스타디를 구해서 화수목금 매일 1개씩 GS또는 사례집 쓰기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표 민사소송법 3법 쓰기를 진행했으며 비중은 민2 특1 상1 정도였습니다. 스타디원들이 워낙 실력이 출중해 초반엔 제 쓰기 폼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특히 민소...) 스타디원들한테 부끄러운 답안지 보여주기가 싫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말은 토일 각각 2GS 풀답안 작성했습니다.

체력관계상 3월까지만 현장GS 쓰고 4월부터는 모두 온라인 침묵 받았습니다. 평소에 긴장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저는 굳이 체력 소진해가면서 현장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긴장을 잘 하는 성격이라면 힘드셔도 현장GS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 힘드시다면 6월GS라도 가보세요!

월요일 제외 매일 GS쓰고 목차는 기본서에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두는 식으로 단권화 진행했습니다. 이외엔 크게 공부법을 바꾼 것이 없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9시에 쓰기 스타디 가기 전에 30분씩 짬을 내어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지만 그냥 조금씩 꾸준히 하다가 막판에 스퍼트내면 무리없이 패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잘 안 하기도 하고(사실 1차 오래 공부하며 산전수전 겪어서....) 2차 수험생활 내내 큰 수험 스트레스가 없었어서 그냥 하던거 쭉 하는 게 멘탈관리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GS성적이 무용하다고 해도 솔직히 하위권이었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스퍼트 미리 올리세요!) 풀답안 작성의 경우 감 잃을까봐 주말에 1GS 정도 작성하는 것 외에는 일체 펜 잡지 않았습니다.

## 답안지

제가 평소에 썼던 GS 중 일부입니다. 보통 뒷문제로 갈수록 글씨가 무너지기에 일부러 마지막 페이지 찍어왔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고득점을 위해 그냥 손가락에 힘을 짝 주고 씁니다. 고득점과 손가락 관절의 건강을 교환했습니다....)

18쪽

### 다수설 - 피고정전심

판례(정답) 당사자 능력 없는 자가 피고로 확정되며 유효한 당사자 능력자의 변경은 당사자 동일성 유지에 있어서는 양의 당사자 변경이다. 피고정전 심판된 이상 해당 제는 효용 없다고 본다.

### 3) 검토

남의 표시정전 의무라는 것이 유효한 당사자 능력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니다. 표시정전심 타당하다.

### (3) 제1 전 사람의 표시정전 시기 - 1심

채권자와 표시정전은 상급에서든 가능하지만, 제1 전 사람의 경우 상급인 삼급이 위태 1심이서만 가능하다.

### (4) 사안

- ① 변항과 관련해 피고로 처벌하여 유효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지이고
- ② 당사자 동일성 변경 전후 유지되는지 판시 정전심 ③ 1심 계속중인 이상 적법하다.

## II. 원고

### 1. 쟁점

소제기에 따라 시효 중단된 것이 원고 (보통 2년) 안에 표시정전의 경우 ① 계산연 2009.8.11 기준 시효중단된다고 볼지,  
② 표시정전 신청서 접수된 2009.9.10. 기준 시효중단되어 이미 시효로 진행된 것 보지 문제된다.

### 2. 표시정전의 효과

- (1) 당사자 동일성 유지 및 채무 이행 결과 쉽게 표시정전은 당사자 상호 동일성 인정되는 바, 공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그치는 수단이 된다.

### (2) 시효중단의 시기

표시정전 신청서 접수된 때 아닌 당초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 발생한다.

### 3. 사안 해결

ZZ에서 표시정전이 이뤄진 이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표시정전 신청서 접수된 때가 아닌 2009.8.11. 전 제시에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2009.8.20 시효 완성 전 소멸시효 중단 사실 인정된다.

## <문제4>

### I. 상황 1.

#### 1. Z의 관습 형질 주장 판단.

(1) 특허법 제 100조에 관습형질 판단 여부

#### 1) 공전 형질

관습형질은 관습 형질에 속하지 않는다. 관습할 수 없다 한다.

#### 2) 관습 형질 다수견

① 설계서상 Z와 Y의 공통점 등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명품 중 본 발명에 대해 부하는 것은 당사자 상호 간,

공익을 배반한다. ② 관습 형질 명백한 관습이란 관습은

본 발명품이며 ③ 관습 형질 명백한 주장 하에 판단 한다면

관습 심리 가능하다.

#### 3) 관습 형질 심리

관습 형질 관습 형질은 자라 관리 권한 부여 받은

대상이다.

#### (2) 사안의 경우

① Z의 주장은 A+B+C는 A+B에 의해 관습 형질 명백한

바, Z 주장 하에 판단 한다면 명백한 바에 A+B 관습

심리 가능하다. ② 특허 등록 행사는 관습 형질에 속하지 않는다.

### 2. Z의 관습 형질 주장 판단

#### (1) 관습 형질 가설 범위 - 형질

특허 발명품 권리 존속 전, 공익을 배반하거나 기타 다른 법률

\* 추가작성의 경우 [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11월 54주 -

WILBIS

윌비스 변리사학원

1544-3383

patent.wilbis.net

**특허법 고득점 비결** 56점(45, 29, 59, 35)

동차 : 기초GS+, 실전A, 콜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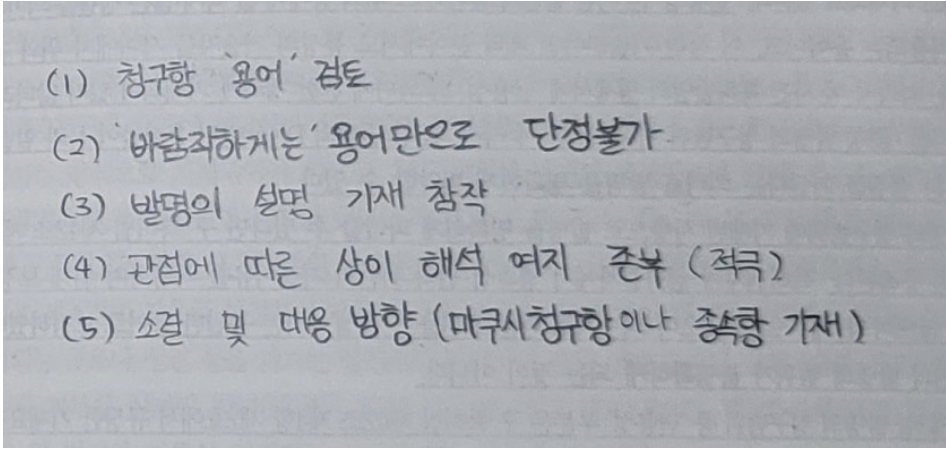
기득 : 전년도 기초GS+, 기출 16개년,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실전A, 실전B

답안 작성 팁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판례를 길게 현출하는 타입이 아닌 **사안해결 분량을 길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문제3의 경우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마 진보성 판단 사안해결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사안해결의 경우, 박형준 변리사님처럼 목차를 잘게 뜯되 목차 서술만으로도 제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차를 잘 잡는 편은 아니었고 판례집을 회독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목차를 잘 잡게된 것 같습니다. 판례집 회독하며 판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사안해결 해야지! 싶은 것들은 따로 판례집 말미에 메모해뒀습니다. 아래는 '바람직하게는' 판례 예시입니다.

- 
- (1) 청구항 '용어' 검토
  - (2) '바람직하게는' 용어만으로 단정불가
  - (3) 발명의 설명 기재 참작
  - (4) 관점에 따른 상이 해석 여지 존부 (적극)
  - (5) 소결 및 대응 방향 (마쿠시청구항이나 종속항 기재)

저는 특히 **목차(4) 같은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확성 요건의 경우 판례가 통상 기술자 수준에서 관점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요지를 **목차에 조금 더 자세히 녹여주고** 적극, 소극 등 결론까지 내려준다면 합격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목차만으로도 내용이 술술 읽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설명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의 예시를 덧붙이자면 <감축 보정 전후 a2 구성이 제외된 상황에서 균등침해 여부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저는 목차를 이렇게 짤 것 같습니다.

사안의 해결

- (1) 갑 실시한 a2 구성의 특징
- (2) 감축보정'만'으로 의식적 제외 단정 가부(소극)
- (3) 여러 제반사정 고려 및 을의 의식적 '제외 의사' 존부 (적극)
- (4) 소결 - 비침해

저는 판례를 길게 현출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굳이 종목차 (1) 같은 부분을 추가해 분량 채우는 트릭을 썼는데 취향이나 필속에 따라 배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만으로도 내용이 읽히는 답안지**에 대한 팁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올해 문4 설1, 설2 같은 단문형 문제는 원래 GS때도 잘 쓰는 편이었는데 저도 왜 잘하는지 잘 몰라서 팁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민사소송법 고득점 비결 70.33점(61, 43, 60, 47)

동차 : 기본강의, 사례강의, 실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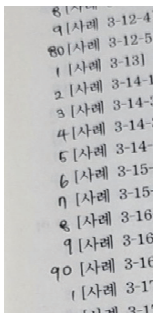
기독 : 심화강의, 기본서, 사례집, 실전A, 실전B

**속도보다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회독수 늘리기는 모래 위에 집짓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낯선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높이 시고 그런 뒤에 회독수를 늘리셔도 무방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평소 GS 성적보다 실제 시험 성적이 훨씬 잘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고득점 비결은 일반론 잘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령 관할 문제의 경우, 관할의 의의 - 관할의 종류 - 관할의 소송법적 특징 - 합의관할의 종류(학 판검) - 관할 합의의 효과 등 소위 말하는 기본목차를 전부 대목차로 준위를 올려서 서술했습니다. **주논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에만 학판검 기재**하며 강약 조절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묻는 것에 비해 10점이란 배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반론을 잔뜩 써서 양을 채웠는데 내년엔 출제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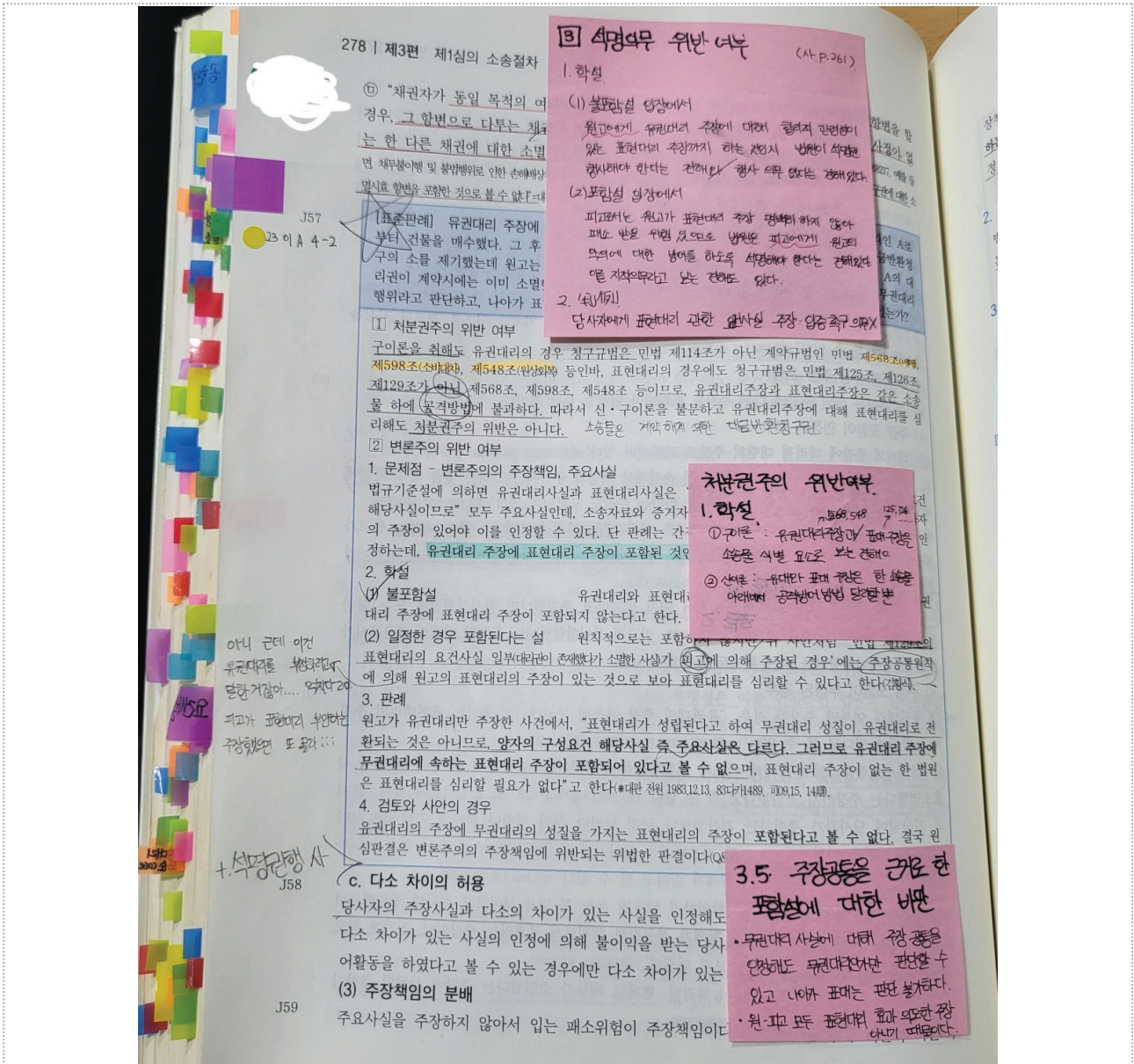
합격수기 제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아직 답안지 열람을 하지 못해 내용이 부실합니다. 11월 중순에 답안지 열람 후 상세 목차 복기 예정이오니 수기 마지막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대로 **사례집 회독** 팁이라도 첨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사례집 모든 문제에 넘버링을 했습니다. 평일에 문제10개씩 목차를 잡고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사례집을 풀진 않고 3n+1 숫자로 풀기, 5n+1 숫자로 풀기 등을 통해 회독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사례집은 사례집대로!**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기본서 회독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기에 사례집 회독속도를 저렇게 조절하며 민소법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반복 학습했습니다.

사례집에만 있는 논점이거나, 사례집에 압축 서술이 잘 되어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별도로 기본서에 포스트잇 붙여 기본서 회독시 함께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작성했는데 유용한 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제 합격 수기를 읽고 계실지 모르 1차N시생 분들께 응원의 말을 남깁니다.

‘1차와2차는 별개의 시험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돌이켜 보면 저도1차 시험을 준비할 때 ‘2차시험이 본 게임이라던데1차도 여러 번 치는 내 머리2차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1차 재시2차 기득/1차 삼시2차 기득 등 정말 다양한 유형의 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짧은 수험생활을 하신 분들이 남긴 합격수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모든 합격자들이 짧은 수험생활을 거친건 아닙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마시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 계정 @studying\_yunhye 나 jam1998@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부족한 수기지만 시간내어 읽어주신 모든 분들과 동차와 기득. 1년 반을 함께 해주신 이창한, 박형준, 한경훈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